‘DGB 비리수사’ 매듭… 은행장 선임 급물살 탄다

펀드 손실금 불법보전사건 마무리
채용비리 박명흠 ‘혐의없음’ 처분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 진행될 듯
지주-은행간 후보요건 조율 관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DGB대구은행 비리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은행장 선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DGB대구은행전경.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관련 비리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차기 행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보전 사건과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을 마무리했다. 은행장 선임의 최대 변수였던 대구은행 비리 수사가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대구은행이 지난 2014년 6월 사비를 각출해 수성구청 펀드손실액 12억20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3명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DGB캐피탈에 채용비리와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명흠 대구은행장 권한대행도 법리상 위계로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으로 심판을 피하게 된 임환오 전 부행장과 노성석 전 부사장, 성무용 전 부행장과 강영순 전 DGB캐피탈 부사장, 이성룡 전 DGB데이터시스템 대표 등 5명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박인규 전 DGB금융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9개월째 공석으로 운영돼 왔다.

대구은행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금융 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40일 이내에 개시된다. 이사회는 40일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 확정한 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은 지난달 통과된 DG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가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지주이사회와 은행이사회 간 후보요건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주이사회는 대구은행장 후보로, 금융회사 20년 이상 경력과 5년 이상 등기임원 경험, 은행사업본부 임원 경험 등을 제시한 반면 은행이사회는 금융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제시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추천권을 지주이사회가 갖고 있지만 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은행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추위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일정이 내년 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초등돌봄교실’ 1호 개관

내년 상반기까지 369개 구축 계획

KB금융그룹은 3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초등학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호 초등돌봄교실’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김석환 홍성군수 및 학부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KB금융의 지원을 통해 설치한 첫 사례며,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 돌봄교실 조성에 있어 금융권 최초의 지원이다.

교실 또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 공간 구성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감성 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은 ‘KB 드림즈 커밍 프로젝트(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이날 개관한 1호 초등돌봄교실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에 총 369 개의 돌봄교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750억원의 지원을 통해 약 1700개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250여개 학급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KB금융이 교육부, 홍성군과 함께 협업해 조성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아동통합지원센터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개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카톡으로 회비 독촉하고 잔액 공유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 시중은행의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 구성원이 잔액이나 내역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금융에 소셜의 기능을 더했다. 모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쓰고 같이 볼 수 있으며,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멤버도 빠르게 초대할 수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기존 은행들과 달리 은행 상품에 소셜의 성격까지 가미해 각종 동호회나 모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모임통장 역시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같지만 다른’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3년 연속 ‘韓 최우수 은행’ 선정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주최하는 ‘더 뱅커 어워드 2018(The Banker Awards 2018)’에서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South Korea)’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in South Korea 2016)‘, ‘2017년 아시아 최우수 은행’(Bank of the Year in Asia-Pacific 2017) 선정에 이은 3년 연속 ‘최우수은행’ 부문 수상이다.

우리은행은 ▲탁월한 경영성과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지주사 전환 ▲글로벌 및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의 향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